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4.24.(금) 14:30 < 4.25.(토) 조간 > 배포 2026. 4. 23.(목)

반년 만에 달라졌다...
“가짜일 줄이고, 성과는 키우고”

- 장관 주재 제2차 全직원 타운홀미팅 개최 -

- 가짜일 줄이기 5개월 성과 공유... 조직문화 개선 체감 비율 53% -

- 관세협상·MASGA팀, M.AX 공로직원 등 총 8건 46명, 6,800만원 포상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4월24일(금)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제2차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이후 추진해 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진짜 성과’를 낸 직원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가 공유되었다. 행사 준비 간소화, 보고 효율화, 스크랩·홍보 개선, 중복 업무 통폐합, 외부 대응 최적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직원 체감도가 높은 6개 중점분야에서의 성과와 함께,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24건의 참여형 개선 과제 성과도 공유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크랩 요약본 제공, 보도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배포 등 홍보 효율화(65%), ▲대기성 야근 감소(61%)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상보고 활성화로 인한 불필요한 출장 감소(58%), ▲소속 국·과장 등의 행사·보고 간소화 인식 개선(58%) 등에서 과반 이상의 직원이 개선을 체감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결과, 1차 타운홀미팅 이후 조직문화 및 업무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직원은 총 53%로, 부정 응답 18%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 제2차 타운홀미팅 사전 설문조사(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200여명, 3.30~4.5일)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 한국생산성본부와 진행한 산업부 조직진단 결과도 공유하였다. 실물경제 부처의 구조적 특성(긴급성·불확실성·타기관 연계)으로 인해 실무 직원 총근로시간의 41.6%가 “현안대응·대외협력”에 투입되고 있다는 외부기관의 진단 결과*에 따라, 산업부는 맞춤형 후속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사무별 투입 노동량과 체감 부하 수준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26.2월)

‘장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인사·복무·복지 등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 문화 정착, ▲직원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 요구,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무형 불이익 해소 등 다양한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제기되었다. 김정관 장관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곧 다음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함께 개최되었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산업부는 이번 제1차 선정에서 총 8건 46명, 합계 6,8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단체 부문에서는 관세협상, MASGA 등 대미(對美)팀(4,000만원)을 포함해 총 4개 팀이 선정됐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M.AX 프로젝트의 정책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사무관(500만원) 등 총 4명이 선정되었다. 실질적 성과는 직급에 관계없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포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부는 이례적 성과를 낸 직원을 수시로 발굴하고 포상할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반년 만에 이룬 변화가 수치로 확인되어 의미가 크다"면서, "형식과 관행에 묻혀있던 시간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고, 그 에너지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혁신 지속 의지를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철영	044-203-5530
		담당자	팀 장	김은하	044-203-5534
			사무관	박현태	044-203-5537
			주무관	임종민	044-203-553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제2차 타운홀미팅 개요**

□ **(목적)** ▲**가짜일 줄이기**, ▲**인사·복지제도 개선** 등 **제1차 타운홀미팅** 이후 **5개월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 모색

□ **(일시/장소)** ’26.4.24(금), 14:30～16:30, 12동 대강당

□ **(참석 대상)** 본부 및 소속기관 全 직원

□ **주요 내용**

① **승진자** 등 **임명장** 수여식

② 제1차 **산업부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

③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 **추진 성과 및 과제**

④ **全직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⑤ 직원 관심 사항 **현장 건의 및 장관 답변**

□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30~14:35	5′	· 행사 안내	운영지원과
14:35~14:55	20′	· 승진자 등 임명장 수여식	
14:55~15:10	15′	· 제1차 산업부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	혁신행정담당관
15:10~15:15	5′	· 가짜일 줄이기 추진성과 및 과제	
15:15~15:20	5′	· 직원 설문 조사 결과 발표	
15:20~16:30	70′	· 장관과의 대화	직원 건의 및 답변

붙임2 **산업부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현황**

□ 수여 대상 : 총 8건(단체 4건, 개인 4건), 46인, 6,800만원

구분	성과명 선정 사유	대상	팀 구성현황 과장 이상	팀 구성현황 4·5급	팀 구성현황 6급 이하	금액
단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대응 총괄 및 한미 조선협력 방안(MASGA 프로젝트) 구상** ▸ 상호관세는 최대 15%, 자동차·부품 관세는 現 25% → 15%, 의약품 및 목재 최대 15% 등으로 인하하면서, 전략적 투자 2,000억불,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 규모로 합의하여 기존 미측 요구에 비해 우리 산업 부담 최소화 ▸ 불확실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조선협력 필요성방향성 제시 → 협상 주도권 확보에 기여	관세협상팀	4	15	3	**4,000만원** **(각 2,000만원)**
		MASGA 프로젝트팀	1	5	3	
	첨단전략산업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제도개선 ▸ 일반지주 손자회사는 불가능했던 외부 공동출자 투자자본 조달방안을 관계부처 합의 통해 마련 ▸ 비수도권 적용 특례 법안을 마련해 국가 균형 발전 및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여건 조성	첨단산업 투자지원팀	1	1		**1,000만원**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을 통한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해외 규제당국과 협의하여 71개 규제를 해소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 장벽 완화 ▸ 타부처에 규제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식의약품, 화학물질 등 부처 협업	TBT대응팀		2	1	**500만원**
	계약업무 효율화에 따른 일선과 부담경감 ▸ 약 60개과에서 연간 180여건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 → 部계약관으로 일원화 ▸ 전문 계약관 운영을 통해 일선과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약의 전문성을 강화	재무팀	1	1	4	**500만원**

개인	**M.AX 정책 기반 마련 및 이행** ▸ 제조 AX가 시급한 상황에서 범정부 주요전략 수립에 M.AX를 반영하여 추진 근거 적기에 마련 ▸ 범부처 및 업계·학계에 M.AX 협력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감대 형성 → M.AX 얼라이언스 구성 ▸ AI 팩토리, AI 로봇 분야 M.AX 협력체계 운영 및 전략방향 수립, 지원사업 기획·시행	안용열 사무관		1		**500만원**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육성·제도개선 및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수립 ▸ 상시화된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자원개발, 정제련, 재자원화 등 전주기 대책 마련 ▸ 할당관세에 재자원화 분야 신설, 산업특수분류 제정 등 재자원화 분야 규제개선 과제 성과	차찬석 사무관		1		**100만원**
	AI 기반 원전수출 통합정보시스템 NU-GPT 출시 ▸ 안전과 신뢰가 최우선인 산업 특성상 소수 노형 중심의 폐쇄적인 해외 공급망 형성 ▸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내의 해외시장 정보 1.3만여건을 AI로 학습시켜 기업에게 제공 ▸ 수출역량이 부족했던 원전 수출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입장벽을 완화	우지식 사무관		1		**100만원**
	65년만의 KS인증제도 전면개편 ▸ 공장 중심 KS인증체계를 첨단 설계기업도 인증 취득이 용이하도록 개편→ 첨단 신산업 성장 촉진 ▸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정기심사 및 의무교육 부담은 줄이되, 사후관리체계 강화	김영국 연구관		1		**100만원**
합 계		**총 46인**	7	28	11	**총 6,800만원**